

# A Study on the Modern Fashion Design Application of the Monochrome Painting

- Focused upon Korean Monochrome Painting in 1970s -

Jho, Eun-Joo\* · Kan, Ho-Sub

Master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Dongduk Women's University

The modern Korean society are promptly changing itself into the new style of life by resolutely abandoning the old way of life in order to participate the globalization in all the fields. Even if the way of life and formal life pattern are changed, our mental position and identity should be determined without any fluctuation. As for the today's fashion, this proposition and justice cannot be an exception, of course. Along with the above coherence, the Korean monochrome paintings in 1970s which showed the unique Korean expression and identity though they were influenced by the western fine arts shows these modern artistic dema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conception of the monochrome painting through the general consideration about the background of the fine art history of the monochrome paintings, and furthermore to project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he monochrome paintings in the fashion design by marking an application in the modern fashion after studying the characteristics which are shown in the Korean monochrome paintings in 1970s while examining them which clearly express the Korean identit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result of the examination of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monochrome was influenced by the minimalism and modernism, and consequently the abstract expressionism which is the main trend of the modern painting was formed basing upon the plane feature and unicolor character, and it was recognized that the custom of the plane feature was implied into the

monochrome.

Second,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beauty of body, beauty of simplicity, beauty of nature, beauty of tradition, and beauty whole of the Korean monochrome paintings in 1970s were expressed in the modern fashion as follows.

The beauty of body can be told as the dress which exposes the body or see-through look in the modern fashion.

The beauty of simplicity is expressed as the most simple and non-decorating minimalism element at its maximum by removing the dart and only with the silhouette.

The beauty of nature is expressed by using the natural and convenient color of which feeling is not strong and bases upon the simple form and while tone while excluding the ornamental details no by using the dart of which shape is artificially created in the clothes.

The beauty of tradition is expressed in the Han-bok which is the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the natural white material which was not affected by the artificial dyeing or decoloration.

The beauty of whole is easily expressed in the repeated print, partition which stresses the spatial beauty, overall harmonized beauty.

This study is the work to project the monochrome painting into the fash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nochrome painting is supposed to be interpreted in the modern fashion, and hope this trial could contribute in expanding the artistic feature of the future monochrome painting and also in developing the modern fashion.

# 모노크롬 회화를 응용한 현대 패션 디자인 연구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를 중심으로-

조은주\* · 간호섭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석사과정\* · 동덕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현대의 한국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급격히 탈바꿈하고 있다. 비록 삶의 방식과 표피적 생활양식은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신적 좌표와 정체성만은 흔들림 없이 확고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패션에 있어서도 이러한 명제의 당위성은 물론 예외가 아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서구 미술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독자적인 한국적 표현과 정체성을 보여준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이러한 현대의 예술적 요구를 잘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는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를 살펴 보면서 이에 나타난 특성들을 연구하여 현대 패션에 응용함으로써 시대사조와 인간내면의 욕구를 반영하는 예술의 한가지인 패션디자인에 모노크롬 회화의 미적 특성을 투영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모노크롬 회화의 미적인 특성들을 파악하여 현대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의상으로의 접목을 시도하여 현대의 패션 감각으로 6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노크롬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 결과 모노크롬 회화는 미니멀리즘과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현대회화의 주요 흐름인 추상표현주의가 평면성과 단색성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그러한 평면성의 관습이 모노크롬으로 함축되었음을 알았다.

둘째,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의 신체미, 단순미, 자연미, 전통미, 전체미 등의 미적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현대 패션에서 표현되었다.

신체미는 현대패션에 있어서 신체를 드러내는

의상이나 시스루룩 등으로 말할 수 있다.

단순미는 의상에서 장식적 요소를 제외하여 절제된 실루엣이나 재질감이 평면적인 소재 등과 평면적 재단으로 다트를 없애고 최대한 비장식적인 미니멀리즘적 요소로 표현된다.

자연미는 의상에서 인위적 형태를 만드는 다트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장식적인 디테일을 배제하고 백색톤을 기본으로 강하지 않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표현된다.

전통미는 우리의 민속의상인 한복이나 인위적인 염색이나 탈색을 하지 않은 자연적인 백색의 소재 등에서 표현된다.

전체미는 현대 패션의 여러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쉽게는 반복적인 프린트에서부터 공간미를 부각시킨 분할, 전체적인 조화미, 소재 자체의 일정한 짜임이나 반복적 디테일등 에서 표현된다.

모노크롬 회화는 서구의 미니멀리즘과 모더니즘에서 영향을 받아 현대 패션의 많은 개념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1970년대 한국 모노크롬 회화는 서구의 모노크롬 회화에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국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받아들임으로써 변화를 수용함으로써의 모범적인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모노크롬 회화를 패션에 투영시키는 작업으로 모노크롬 회화의 특성을 현대 패션에서 새롭게 재해석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시도가 이후 모노크롬 회화의 예술성을 확장시키고 현대 패션이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